

여수 묘도 '탄소중립 에너지 클러스터' 지속 추진

전남도·여수시 등 업무 협약 '차기 정부 적극 지원 필요'

철강·화학 산업의 집적지인 여수·광양만권 내에 '탄소중립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학·관 노력의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기업들이 탄소 배출 저감 및 관련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 여수시, (주)한양, 학계 등은 지난해 말 탄소중립 에너지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주요기업 등과 함께 클러스터가 조성될 여수 묘도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지속적 협의와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24일 전남도, (주)한양 등에 따르면 여수·광양만권에서는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전체의 12.4%인 약 9,03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여수국가산업단은 국내 산업 중 탄소배출량 1위이다. 탄소 감축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하는 최적지로 평가받는 이유다.

또 (주)한양이 여수 묘도(약 312만㎡)의 부지 매입이 완료하고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LNG 탱크 12기)과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중에 있어 이를 거점으로 '탄소 중립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묘도에서 여수산업단 간 해상 파이프랙을 건설할 경우 원활한 원료 및 연료 공급체계도 마련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묘도의 탄소중립 에너지 클러스터에는 수소 터미널, 암모니아 터미널, CCU/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용) 기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여수산업단과 광양산업단 중심에 위치한 묘도에서 천연가스, 암모니아 개질(reforming)을 통해 수소 생산부터 공급, 탄소 포집과 이산화탄소 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이 가능한 '수소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수소-암모니아 해외 생산업체 확보, 국내 수요처 선정과 수입 터미널 등의 전

제조건이 이행돼야 하며, 무엇보다 묘도 및 여수산업단에 원활한 전력계통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올해 말 제10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여수지역에 전력계통 보강 계획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전남도와 (주)한양의 입장이다.

(주)한양 관계자는 "탄소중립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 전반적으로 15조원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만큼 정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주민과 상생 위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해 전남 동부권의 대기환경의 대폭 개선, 새로운 에너지 수소의 다량 확보, 약 14만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

광주시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 45대를 4월부터 추가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현재 38개 노선, 303대 친환경 저상버스가 운행 중이다.

올 연말이면 348대로 늘어 전체 시내버스 999대 중 34.8%를 차지하게 된다.

저상버스는 계단 대신 경사판 등을 사용하며 휠체어 비치 공간과 고정 장치, 교통약자 전용 정차 벨 등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광주시는 점자 블록, 햇빛·비가림 시설이 마련된 무장애 정류소도 현재 118곳에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저상버스 노선별 운행시간표는 광주시 버스운영정보시스템(B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원일 기자 cki@



'사랑의 밥차' 다시 달린다 24일 오전 광주 남구 월산동 자원봉사센터 작업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올해 처음으로 남구 관내 17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어르신과 소외계층에 전달할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IBK 기업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랑의 밥차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대면 식사 대신 도시락을 제작, 이날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저리 지원

개인 1억·법인 5억 한도...판로 확대·경쟁력 강화 기대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리 융자하는 '2022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72억원을 46농가에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친

환경농업을 실천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위한 것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데 쓰인다. 이자는 연리 1%다.

운영자금은 친환경 농산물 원료 매입, 포장 디

자인 개발, 농자재 구입 등에 사용하며 28농가에 53억원을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육묘장 및 지은 창고·가공·유통시설 신축, 시설하우스 설치 등에 쓰이며 18농가에 19억원을 투입한다.

지원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5억원이다.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6년 균분 상환이다. 소득 발생이 늦은 과수 등 사업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유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해외 관광객 모셔라"

협력 여행사 공모...선제적 홍보 등 국제관광 수요 회복 기대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코로나 주기에 유행(엔데믹) 시대로의 전환을 앞두고 국제관광 재개를 위해 '전남 해외 관광객 유치 협력 여행사' 공모에 나섰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공모는 4월 8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바라는 여행사는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의 공모문을 참조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협력 여행사는 국가·테마별로 안배해 선정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유사 사업 수행실적과 상품개발·운영의 실현 가능성, 상품 마케팅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15개 여행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국제관광 환경 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공모에서 선정된 중화권 여행사는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중국 인연지 관광 상품, 동남아 여행사는 가을 단풍 여행

상품, 구·미주 여행사는 남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여행 상품 등을 공동 개발한다.

여행사는 여행 상품 발굴 및 외국인 관광객 공동 유치 활동을 펼치며 이를 위한 광고비, 현지 마케팅 활동비, 가이드비, 유류체험비 등을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협력 여행사와 함께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관광시장 수요 회복을 위해 여행안전권역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며 유럽·아메리카, 중동 등 신규시장 개척에 힘쓸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한 해외 입국자의 자기격리 면제로 국제관광 수요 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여행사와 함께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적극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준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실 운영

농작업반·외국인근로자·군장병 등 확보 총력

전남도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수급 지원 계획'을 세우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중점관리 대상 농작업은 양파·마늘 수확, 고추·고구마 정식, 배 수분·적과 등 5개 작물 관련 작업이다. 이 작물의 전남 재배 면적은 총 1만8220ha로,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은 47만6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전남도는 3월 들어 '봄철 농번기 인력지원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시군, 농협과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상황실은 농작업 진행과 인력 수급 현황, 인건비 상승 동향을 살피고 시군 인력 운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농촌인력수급의 중심축에 있는 34개소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기능도 강화한다. 주요 농작업반을 250팀 3000명으로 확대해 인력중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농촌일자리 알선·중개와 농작업자 현장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인접 시군 간 농작업반을 작업 시기별로 교류 투입해 중개 범위를 확대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이뤄지는 무료 중개, 작업반 수송, 간식비·상해보험료 지원 등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이 억제될 전망이다.

농촌일손돕기를 바라는 공공기관과 자원봉사자는 도(www.jeonnam.go.kr), 시군 누리집이나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